

# 봉인이 풀릴 때 멈춘 바람과 울부짖는 땅

---

## I. 서론

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왕좌(왕권) 앞에서 드러지는 예배로, 5장은 하늘의 재판정(합법성) 안에서 “봉인된 책”을 어린양께서 취하심으로 역사의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합니다(계 4:2-11; 계 5:1-10; 단 7:9-14; 요 5:22, 27).

그리고 6장은 그 “책”의 봉인들이 실제로 풀리기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. 즉, 6장부터는 “하늘에서 확정된 권리”가 “땅에서 실행되는 과정”으로 바뀝니다(계 5:7; 계 6:1).

그런데 성령님은 6장을 “재앙 목록”으로만 읽게 두지 않으시고, 6장의 여섯째 봉인(계 6:12-17)에서 한번 멈춰 세우신 뒤, 7장을 “삽입장(Interlude)”으로 배치하셔서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하십니다(계 6:17; 계 7:1-3).

- 계 6:17 “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?”

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늘의 답입니다(계 7:9-17).

정리의 목표는 (1) 각 절의 상징과 표현을 성경문법으로 풀고, (2) 절과 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맥을 따라가며, (3)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(고전 2:13; 요 5:39; 계 5:9-10).

---

## II. 본문 (KJB +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)

### A. 계 6장: 여섯 봉인의 개봉(심판의 연쇄)

#### 계 6:1

- 본문은 “어린양이 봉인 하나를 여실 때”로 시작합니다. 심판의 시작점이 천사가 아니라 어린양(예수 그리스도)임을 첫 절부터 못 박습니다(계 5:7; 계 6:1; 요 5:22; 행 17:31).
- 네 생물(4장)의 하나가 “천둥 같은 음성”으로 부릅니다. 이것은
  - 왕좌에서 나오는 “번개/음성/천둥”(계 4:5)과 같은 계열의 표현이며,
  - 봉인이 풀리는 사건이 단순 재난이 아니라 왕좌의 공적 집행임을 알리는 “법정적 호출”로 읽힙니다(계 4:5; 계 10:3-4; 단 7:10).
- KJB는 이 부름을 “Come and see”로 제시합니다. 이 호출은 요한(그리고 독자)이 역사의 격변을 ‘구경거리’로 ‘소비’하는 것이 아니라, 하늘 관점에서 보고 증언하도록 소환되는 형식을 띠입니다(계 1:19; 계 22:16; 요 19:35 / 첫 언급 - 시 66:5, 신약 첫 언급 - 요 1:39).

#### 계 6:2

- “흰 말”이 등장합니다. 계시록에서 말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**전쟁/정복/심판의 진행을 실어 나르는 상징적 매개**로 자주 작동합니다. 특히 구약에서 말·병거 환상은 하나님의 “감찰/파송/심판”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반복됩니다(속 1:8-11; 속 6:1-8; 왕하 6:17; 시 76:6).
- **흰 색**은 계시록에서 의/정결/승리의 이미지로 자주 나타납니다(계 3:4-5; 계 7:9, 13-14; 계 19:8, 11). 그러나 6장 문맥에서는 “참된 의”라기보다 **의로 위장한 정복, 평화로 포장된 지배**의 뉘앙스로 읽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“겉모양의 빛”이 “참된 빛”을 가장하는 성경적 경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(고후 11:14; 마 24:5; 살전 5:3).
- 계 19장에서 그리스도는 흰 말에 타시지만(계 19:11), 그분은 “많은 왕관”과 “입의 칼”로 **진리의 심판**을 집행하십니다(계 19:12, 15). 반면 계 6:2의 탄 자는 **활**을 가지며 “왕관을 받았고(given)” “정복하고 정복하려” 나아갑니다. “받았다/주어졌다”는 표현은 ‘자기 본래의 왕권’이라기보다 **허락/부여된 권세**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드러냅니다(계 6:2; 계 13:5, 7; 단 7:6, 14).
- **활**: 계시록과 구약에서 활은 전쟁·정복의 상징으로 흔히 사용됩니다. 칼이 “근접 심판/직접 베는 힘”이라면, 활은 “원거리 압박/위협/항복을 끌어내는 힘”의 이미지가 강합니다(시 46:9; 렘 50:14; 속 9:13; 호 1:5). 더구나 본문은 “화살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초기 국면의 정복이 “대규모 전면전”이라기보다, **조약/외교/정치적 승리를 통해 땅을 장악해 가는 그림**으로 읽힐 여지가 큼니다.
- **왕관**: 계시록에는 ‘승리의 관(스테파노스)’ 계열과 ‘왕권의 관(디아DEM)’ 계열이 대비되는 흐름이 있습니다. (요점: *diadēma*는 “왕권”의 표지로, *stephanos*는 “승리/보상”의 표지로 주로 작동합니다.) 성도/승리자에게 약속된 관은 주로 “받는 관”(스테파노스)인데, 흰말을 탄 자의 왕관도 스테파노스로 즉, **정당한 세습 왕권(diadem)**이 아니라, **승리-성으로 얻은 듯 보이는 권위**입니다. (‘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’를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)
- “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”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**정복이 과정(연속성)**이며 **더 많은 정복을 향해 확장**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이 “이기다/정복하다(극복하다)” 어휘군은 계시록에서 ‘짐승이 성도를 이기는 것’과 ‘어린양이 이기는 것’의 대립 구조로도 반복됩니다(계 6:2; 계 13:7; 계 17:14; 요일 5:4-5).
- 문맥 연결: 4-5장에서 책을 취하신 어린양이 봉인을 여시자마자, 땅에는 “불과 유황”이 아니라 **거짓 질서의 등장(정복의 시작)**이 먼저 나타납니다. 이는 “마지막 때”에 속임수·거짓 그리스도·거짓 평화가 선행한다는 신약의 경고와도 결이 맞습니다(마 24:4-5; 살전 5:3; 계 6:2).

## 계 6:3

- 둘째 봉인이 열리고 둘째 짐승이 다시 호출합니다.
- 첫 네 봉인이 네 짐승의 반복 호출로 진행되는 것은, **의도적으로 ‘4중 구조’**를 만듭니다. 이 재난이 산발적 사건이 아니라 **전 지구적 확산(네 방향)의 틀**을 갖춘 연쇄임을 강조하는 문법으로 읽힙니다(계 4:6-8; 계 6:3-8; 마 24:7-8).

## 계 6:4

- “붉은 말”은 **피/살육/전쟁**의 색채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(사 1:15; 계 6:4; 계 12:3).
- 탄 자에게 “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”집니다. 여기서 핵심은
  1. 평화가 ‘자연히 사라진다’가 아니라 **‘제거된다’(빼앗긴다)**는 점, 즉, 인간이 쌓아올린 질서가 스스로 붕괴한다기보다, **허락된 권세가 화평을 제거함**으로써 땅의 본색(죄의 폭력성)을 드러내는 구조입니다.
  2. “서로 죽이게”는 전쟁이 단지 국가 간 전쟁만이 아니라, **사회 내부의 내전/폭동/상호 살육**까지 포함하는 폭력의 확장이라는 점입니다(계 6:4; 마 24:6-7; 사 57:20-21).

- “큰 칼”은 폭력의 규모·강도를 상징합니다. 칼은 심판의 도구로도 자주 쓰이며, “칼·기근·전염(죽음)·짐승”의 결은 구약의 혹독한 심판 패턴과 맞물립니다(겔 14:21; 렘 15:3; 계 6:4, 8).
- 문맥 연결: 첫째 말이 “정복(겔으로는 질서)”이라면, 둘째 말은 그 질서가 유지하던 “평화” 자체를 뽑아 버려, 정복이 결국 피로 유지되는 통치임을 드러냅니다.

## 계 6:5

- 셋째 봉인이 열리자 “검은 말”이 나오고, 탄 자는 “저울”을 가집니다.
- 검은 색은 애통/기근/절망의 결을 씁니다.
- 저울은 ‘공정’의 상징도 될 수 있지만, 여기서는 기근 문맥에서 배급·계량·통제의 상징으로 기능합니다. 즉, 먹을 것이 “풍성히 나눠지는” 저울이 아니라, 최소한의 생존량을 재고 또 재어야 하는 저울입니다. (애 5:10; 겔 4:10-16; 레 19:36; 계 6:5).

## 계 6:6

- “네 생물의 한가운데서 나는 음성”은 이 기근이 단순 경제 현상이 아니라 하늘 법정의 판결(왕좌 권위의 반영)이 땅에 반영\*\*되는 사건임을 암시합니다.(계 4:5; 계 6:6).
- “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, 보리 세 되가 한 데나리온”은 ‘노동의 하루 품삯’이 ‘하루 식량’(하루 생존)으로 바뀌는 수준의 극심한 물가 폭등/생존 위기의 그림으로 읽힙니다. 성경은 기근 때 ‘비정상 가격’과 ‘먹을 것의 계량’을 반복적으로 보여 줍니다(왕하 6:25; 겔 4:16-17; 마 24:7).
  - 핵심은 “돈이 있어도 배불리 먹지 못한다”는 구조입니다.
- “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”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.
  1. 심판의 제한(허락된 범위의 통제): 기근이 전면 멸절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통제된 타격으로 진행됩니다.
  2. 비대칭 타격: 기본 곡물(밀/보리)은 타격을 받는데, 기름/포도주(상대적으로 ‘여유/사치/기호’의 상징)는 보존됩니다.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
    - 가난한 자는 굶고,
    - 가진 자는 “남는 것”을 유지하는, 불의한 양극화가 심판의 한 형태로 드러납니다.
- 문맥 연결: 평화가 제거된 뒤(전쟁), 전쟁의 뒤편에서 늘 따라오는 것은 식량 위기입니다. 둘째와 셋째 봉인은 서로를 ‘설명’합니다.

## 계 6:7

- 넷째 봉인이 열리고 넷째 생물이 다시 호출합니다.
- 첫 네 봉인이 모두 같은 리듬(열림 → 짐승의 호출 → 말 등장)을 따르는 것은, 이것이 “우발적 사건 나열”이 아니라 계획된 연쇄(프로그램)임을 강조합니다.(계 6:7-8).

## 계 6:8

- “창백한 말”은 KJB 문법에서 독특합니다. 색채가 단순 ‘흰/검/붉’이 아니라, 시체빛(생명 빠진 색)에 가깝습니다. 원어의 결도 ‘푸르스름한/창백한’ 방향을 씁니다.
- 탄 자의 이름이 “사망”이고, “지옥(음부)”이 뒤따릅니다. 여기서
  -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,

-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영역(무덤 권세)을 떠올리게 합니다.  
아직 “불못”의 최종판결(계 20장)이 아니라, 역사 속에서 죽음과 무덤이 인간을 삼키는 시대적 우세가 펼쳐지는 그림입니다.(계 1:18; 계 6:8; 계 20:13-14; 고전 15:26, 55).
- “땅의 사분의 일”은 전 지구적이되 전멸이 아닌 제한된 비율입니다. “주어졌다”는 문법이 여기서도 반복되어, 심판이 통제 밖 폭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허용임을 드러냅니다(계 6:8; 계 13:5, 7).
- 죽이는 방식이 “칼/기근/사망/땅의 짐승들”로 나열되는데, 이것은 구약의 “네 가지 혹독한 심판” 패턴(전쟁·기근·전염/죽음·짐승)을 떠올리게 하며, 계시록이 구약의 심판 문법을 ‘마지막 날’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.(겔 14:21; 렘 15:3; 계 6:8).
- 문맥 연결: 정복(1) → 전쟁(2) → 기근(3) → 대량 죽음(4).  
봉인의 연쇄는 인간 문명이 자랑하던 것들을 차례로 무너뜨립니다(정치·평화·경제·생명).

## 계 6:9

- 다섯째 봉인부터 장면이 바뀝니다. 말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“죽임을 당한 혼들”이 보입니다.
- “제단 아래”는 구약 제사의 문법을 빌려, 그들의 죽음이 단순 피해가 아니라 증언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피라는 상징을 강화합니다. 피가 제단 밑에 쏟아지는 제사 규례와 “피가 부르짖는” 첫 용례가 함께 이 의미를 받쳐 줍니다(레 4:7, 18, 30; 레 17:11; 창 4:10).
- 그들이 죽은 이유는 “하나님의 말씀”과 “그들이 가진 증언” 때문입니다. 즉, 이 죽음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, 말씀을 붙든 자를 향한 세상의 증오가 폭발한 결과입니다.
  - 신약은 ‘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’는 원리를 반복하며(딤후 3:12), 계시록은 이를 마지막 때의 강도로 보여 줍니다(계 6:9; 요 16:2; 계 20:4).
- 문맥 연결: 앞의 네 봉인에서 인간의 폭력/기근/죽음이 확산되었다면, 다섯째 봉인은 그 시대가 결국 “증언하는 성도”를 죽이는 시대로 수렴함을 보여 줍니다.

## 계 6:10

- 그들은 “거룩하고 진실하신 주”께 “얼마나 더 오래” 판단과 신원을 미루실 것인지 외칩니다. “얼마나 더”의 탄원은 시편과 대언서에서 반복되는 공의 집행을 촉구하는 기도 문법입니다(시 79:5; 시 94:3; 합 1:2; 스 1:12; 계 6:10).
- 이 기도는 개인적 복수심의 발화라기보다,
  - “거룩”과 “진리”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,
  - 땅에 거하는 자들의 피값을 공의롭게 판결해 달라는 법정적 탄원입니다. (계 3:7; 계 15:3; 계 16:7; 계 19:2).
- 계시록에서 “땅에 거하는 자들”은 단순히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는 지리적 표현이 아니라, 하늘을 거부하고 땅을 자기 영원한 집으로 삼는 반역의 정체성으로 반복 사용됩니다(계 3:10; 계 6:10; 계 8:13; 계 13:8).
- 문맥 연결: 5장에서 “성도들의 기도”가 금 대접에 담겨 있던 장면과 연결하면, 이 탄원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, 누적된 기도의 정점입니다.(시 56:8; 시 141:2; 말 3:16)

## 계 6:11

- 각 혼에게 “흰 예복”이 주어집니다. 이는 그들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심/승리의 표지임을 선언합니다(계 3:4-5, 18; 계 6:11; 계 7:9, 13-14; 계 19:8).

- “아직 잠시 동안 안식하라”와 함께 더 많은 순교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.
  - 그리고 “아직 잠시 쉬라”는 말과 함께, 더 많은 순교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문맥은 두 가지입니다.
    1. 하나님은 심판을 ‘급발진’하지 않으십니다. **정확한 때가 있습니다.**
    2. 악의 폭주는 통제 밖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‘**완결(채움)**’의 시간을 향해 갑니다.(계 6:11; 계 13:7; 계 17:6; 롬 8:36).
- 문맥 연결: 다섯째 봉인은 심판의 “속도”를 늦추는 장면이 아니라, 심판의 “정당성”이 **피 흘린 증언 위**에 서 있다는 것을 밝히는 장면입니다.

## 계 6:12

- 여섯째 봉인이 열리자 “큰 지진”과 “해/달”의 변동이 나옵니다.
- 첫 네 봉인이 “인간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붕괴”였다면, 여섯째 봉인은 인간사의 혼란을 넘어 **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표적**으로, “주의 날” 표적의 성경적 어휘장과 맞물립니다(욥 2:30-31; 사 13:10; 마 24:29; 행 2:20; 계 6:12).
  - 이때부터 사람들은 단지 전쟁/경제를 탓하지 못하고, “이건 위에서 오는 일”임을 직감하게 됩니다.
- 또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“흔드시는” 선언은 구약과 히브리서에서 종말론적 틀로 제시됩니다(학 2:6; 히 12:26-27).

## 계 6:13

- “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”는 표현은, 문자적으로는 운석·천체 현상 같은 ‘낙하’ 현상뿐 아니라 **하늘 질서 붕괴의 충격**을 묘사하는 종말 표적의 관용구로 반복됩니다(사 34:4; 마 24:29; 계 6:13).
- “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”는 갑작스럽고 대량이며 저항 불가능한 붕괴의 비유입니다.
- “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”는 갑작스럽고, 대량이며, 저항 불가능한 붕괴의 이미지입니다(나 3:12; 계 6:13).
- 문맥 연결: 여섯째 봉인은 “심판이 시작됐다” 정도가 아니라, **사람들이 더 이상 도망칠 ‘정상 세계’가 남아 있지 않다는 단계**로 넘어가게 합니다.

## 계 6:14

- “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”는 눈에 보이는 ‘하늘’(우리가 익숙한 안정된 프레임)이 벗겨지는 종말의 하늘 변동을 묘사하는 성경적 문법과 연결됩니다(사 34:4; 히 1:12; 벧후 3:10-12; 계 6:14).
- “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”는 땅의 ‘기준점’(산·섬 같은 고정)이 흔들린다는 표지로, 이후 대접 심판에서도 같은 어휘가 재등장합니다(계 16:20; 시 46:2-3; 계 6:14).
- 문맥 연결: 앞의 봉인들이 인류 문명을 흔들었다면, 여섯째 봉인은 **인류가 의지하던 자연·지형·우주적 안정까지 흔들**니다. 인간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.

## 계 6:15

- 왕들/위대한 자들/부자들/지휘관/강한 자들/모든 종/자유인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. 이는 심판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**전 인류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사건**임을 말합니다(롬 3:19;

계 6:15).

- “숨음”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 최초의 문법(창 3장)과도 연결되며, 종말에는 더 극대화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(창 3:8-10; 계 6:15).
- 문맥 연결: 4-5장에서 왕좌 앞에 모두가 엎드렸다면(예배), 6장에서는 땅의 모든 계층이 왕좌 앞에서 엎드리기를 거부한 채 숨으려 합니다. 그러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.

## 계 6:16

-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“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 달라”고 말합니다. 이 장면은 “바위 틈에 숨으라”는 대언서의 종말 경고와 직접적으로 겹칩니다(사 2:10, 19, 21; 계 6:16).
  - 여기서 비극은,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아니라,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자의 도피라는 점입니다.
-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“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”과 “어린양의 진노”라는 점이 중요합니다. 구원자이신 어린양을 거절한 결과, 그분은 동일한 거룩함 안에서 심판의 주로 드러납니다(시 2:12; 요 3:36; 계 6:16; 계 19:15).
  - 어린양은 5장에서 “죽임당한 구속자”였는데, 이제 6장에서는 “진노의 주체”로 불립니다.
  - 이것은 어린양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, 거절된 구원이 심판으로 드러나는 필연입니다.
- “산이 우리를 덮으라”는 표현은 복음서에서도 재등장하며(눅 23:30), ‘회개’가 아니라 ‘가려짐’을 구하는 죄의 본능을 드러냅니다(호 10:8; 눅 23:30; 계 6:16).
- 문맥 연결: 사람들은 “회개”가 아니라 “가려짐”을 구합니다. 심판 앞에서 인간의 마지막 본능이 빛을 싫어하는 어둠으로 드러납니다.

## 계 6:17

- “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”는 선언과 함께, “누가 능히 서리요?”라는 질문으로 6장이 끝납니다.
- 여기에는 (already but not yet)의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.
  - “큰 날이 왔다”는 선언은 심판이 개시(開始)되었음을 뜻하지만,
  - 그 “큰 날”의 완전한 종결은 아직 더 전개됩니다(이후 나팔과 대접으로 확대).
  - “그분의 진노의 큰 날”은 “주의 날”·“진노의 날” 어휘군과 연결되며, 공의의 최종 집행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문법입니다(습 1:14-18; 롬 2:5; 계 11:18; 계 6:17).
  - “누가 능히 서리요?”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“서지 못함”을 묻는 대언서의 질문들과 맞물립니다. 동시에 7장은 “서 있는 무리”를 실제로 보여 주며 질문에 답합니다(말 3:2; 나 1:6; 계 6:17; 계 7:9).
- 그리고 성령님은 즉시 7장을 삽입하셔서, “서 있는 자”가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.

---

## B. 계 7장: 삽입장(“누가 능히 서리요?”에 대한 하늘의 답)

### 계 7:1

- “이 일 후에” 네 천사가 땅 사방에서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합니다.
- 바람은 성경에서 종종 심판의 매개(재앙을 몰고 오는 힘)로 기능합니다.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, 하나님께서 심판을 “내려치기” 전에 한 번 멈추어 조절하신다는 뜻입니다.

- 성경에서 “네 바람”은 땅의 사방(전 지구적 범위)을 가리키는 종말/회수/심판의 어휘로도 사용됩니다(단 7:2; 마 24:31; 계 7:1).
- “바람을 붙잡는다”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무정하게 폭주시키지 않고, 집행 전에 멈추고 조절하시는 주권을 보여 줍니다(계 7:1-3; 계 9:4).
- “땅/바다/나무”는 이후 재앙들이 닿는 영역들을 대표합니다. 즉 7장은 “심판의 압력”이 더 커지기 직전, 하나님이 구원의 표식을 먼저 찍으시는 장입니다.

## 계 7:2

- “해 돋는 곳(동쪽)”에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“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”을 가지고 옵니다. “살아 계신 하나님”은 죽음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구원이 생명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선언입니다(계 7:2; 계 6:8; 살전 1:9).
-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, 성경에서 빛·소망·새 시작의 상징어휘와 연결되기도 합니다(말 4:2; 눅 1:78-79; 계 7:2). 여기서 핵심은 방향보다 “살아 계신 하나님”이라는 표현입니다.
  - 심판의 시대에 땅은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(계 6:8),
  - 인을 주시는 분은 “살아 계신” 하나님이십니다.
 즉, 구원은 죽음의 시대에도 생명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선언입니다.

## 계 7:3

- “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.”
- 심판은 무정한 폭풍이 아니라,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고 보호하는 계획을 먼저 수행한 뒤 진행됩니다(계 7:3; 계 9:4).
- “이마”는 공개적 표식의 자리입니다. “이마”의 표식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 중에 구별하는 표식 문법과 연결됩니다(겔 9:4-6; 계 7:3).
- 또한 율법 안에서 “표식을 손/미간에 두라”는 표현이 ‘소속과 기억’의 상징으로 나타났고, 계시록은 이를 마지막 때의 “소속 전쟁”으로 확대합니다(출 13:9, 16; 신 6:8; 계 13:16-17; 계 14:9).
  - 짐승의 표가 이마/손에 나타나는 것과 대비되며,
  - 마지막 때의 전쟁이 결국 “정보전”이 아니라 소속의 전쟁(누구의 것인가)임을 보여 줍니다.

## 계 7:4

- 요한은 “인친 자들의 수”를 들고, 그 수가 “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4,000”임을 들었습니다. 계시록은 종종 “듣고/보고”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, ‘하늘의 선언(듣는 것)’과 ‘현장의 성취(보는 것)’를 이어 붙입니다(계 7:4, 9; 계 5:5-6).
- 여기서 성경문법은 단순합니다.
  - “이스라엘 자손”이라고 명시될 때, 이것을 곧바로 “교회”로 바꿔 읽는 것은 문맥을 찢는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.
- 144,000은 12(지파) × 12,000(각 지파)의 구조로,
  - ‘무작위 일부’가 아니라 구별된 대표성의 총만을 상징합니다.
  - 동시에 숫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므로, 막연한 “상징적 많음”과도 구분됩니다.

## 계 7:5

- 유다 12,000 / 르우벤 12,000 / 갓 12,000
- 유다 12,000이 먼저 배치되는 것은 언약의 지파로 **우선권의 배치**로 읽힙니다. 유다는 메시아(왕권)의 지파로 예언되며, 계시록에서도 “유다 지파의 사자”가 어린양으로 나타납니다(창 49:10; 히 7:14; 계 5:5; 계 7:5).
-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우선에서 내려가 있습니다.
  - 장자권이 범죄로 인해 흔들리는 성경적 용례가 르우벤에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(창 49:3-4; 대상 5:1-2).
  -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“혈통의 장자권”이 아니라 **언약의 선(유다—다윗—그리스도)**을 따라 배열하신다는 느낌을 줍니다.

## 계 7:6

- 아셀 / 납달리 / 므낫세 각 12,000
- 므낫세가 독립 지파로 포함되는 것은 “요셉 계열”이 분리되어 계수됨을 보여 줍니다(이후 요셉도 다시 등장).
- 이 목록이 단순 “땅 분배용 목록”과는 다른 “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을 인침의 목적”에 맞춘 배열임을 암시합니다(계 7:6; 민 1:32-35).

## 계 7:7

- 시므온 / 레위 / 잇사갈 각 12,000
- 레위는 보통 제사장 지파로서 “땅 분배” 목록에서는 제외되지만, 여기서는 다른 지파들과 나란히 계수됩니다. 이는 “땅 기업”보다 **하나님 소속/사명 부여**의 성격이 더 전면에 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(민 1:49-53; 신 18:1-2; 계 7:7).

## 계 7:8

- 스불론 / 요셉 / 베냐민 각 12,000
- 여기서 해석의 쟁점은 “단 지파가 목록에 없다”는 점인데,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해설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단정적 추정을 피하고, 최소한 “계시록의 지파 목록은 목적에 맞춘 선택적 배열”이라는 점만 분명히 붙듭니다(계 7:4-8).
- 다만 단 지파는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뚜렷한 기록을 남기며(삿 18:30-31), “단이 뱀”으로 묘사되는 예언적 표현도 존재합니다(창 49:17). 이런 배경은 “왜 이런 배열이 가능한가”를 이해하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,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결론을 과도하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(창 49:17; 삿 18:30-31; 계 7:4-8).
- 따라서 단의 누락을 과도한 추정보다,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.  
**7장의 인침은 ‘이스라엘’이라는 이름 아래서도,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 ‘구별’의 표식을 찍으시는 특별한 집단을 따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.**

## 계 7:9

- 이제 요한은 “본다”고 말하며, 144,000의 ‘계수된 이스라엘’ 다음에 “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”를 봅니다.
- 이 큰 무리는 “모든 민족/족속/백성/언어”에서 나와 왕좌와 어린양 앞에 서 있습니다.

- 여기서 7장은 의도적으로 두 장면을 나란히 둡니다.
  - 셀 수 있는 수(**144,000**):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붙드시는 “이스라엘의 구별된 무리”
  - 셀 수 없는 수(**큰 무리**): 환난 한복판에서 어린양께로 돌아오는 “열방의 구원”
- 이스라엘(계수됨)과 열방(셀 수 없음)이 한 장 안에서 나란히 제시되는 배열 자체가,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“이스라엘을 통한 목적”과 “열방의 구원”을 함께 진행하심을 드러냅니다(계 7:9; 계 5:9; 사 49:6).
- “모든 민족/족속/백성/언어”는 계시록의 구속 범위를 요약하는 반복 어휘입니다(계 5:9; 계 7:9; 계 14:6; 계 15:4).
- “종려나무 가지”는 절기적 기쁨과 승리의 상징으로,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단순 생존자나 “패배자”가 아니라 구원받은 승리자로 서 있음을 강조합니다(요 12:13; 계 7:9).

## 계 7:10

- “구원은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다.”고 외칩니다.
- 구원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도, 동시에 어린양께도 돌립니다. 이는 5장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, 어린양이 단지 중개자가 아니라 **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**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.
- “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”는 고백은 구약에서도 명확히 반복되며, 계시록은 그 구원이 어린양 안에서 성취됨을 드러냅니다(욥 2:9; 사 43:11; 계 7:10; 요 1:29; 행 4:12).
- 문맥 연결: 6장에서는 사람들이 “어린양의 진노”를 두려워했고, 7장에서는 성도들이 “어린양의 구원”을 찬양합니다.  
같은 어린양이 거절한 자에게는 진노,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드러납니다.

## 계 7:11

-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네 생물이 왕좌 둘레에 서서 엎드려 경배합니다.
- 4-5장의 하늘 예배 장면이 7장에서도 이어져, 6장의 격변이 하늘을 흔든 것이 아니라 **하늘에서 확정된 왕권 고백이 땅에서 집행되는 과정**임을 보여 줍니다(계 4:9-11; 계 5:11-14; 계 7:11).

## 계 7:12

- “찬송/영광/지혜/감사/존귀/권능/힘”의 일곱 겹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.
- 일곱 겹은 우연한 수사가 아니라 “완전한 찬양”의 문법입니다.
- 계시록은 같은 7중 찬양을 5장에서도 반복하며, 구약의 송영(다윗의 찬양)과도 결이 닿습니다(계 5:12; 계 7:12; 대상 29:11-13).
- 문맥 연결: 6장이 “무너지는 땅”이라면, 7장은 “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고백”입니다.

## 계 7:13

- 장로 중 하나가 “흰 예복 입은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”고 묻습니다.
- 이 질문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, 독자에게 해석의 열쇠를 쥐여 주려는 **교수법적 질문**입니다. 6:17의 질문(누가 서리요?)에 대한 해설이 이제 시작됩니다.(계 6:17; 계 7:13).

## 계 7:14

- 요한은 “주여 당신이 아십니다”라고 답하고, 장로가 해석합니다.  
“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, 자기 예복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이다.”
- “큰 환난”은 막연한 인생 고난이 아니라, 계시록의 문맥에서 **마지막 날의 심판 국면 속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환난의 시기**를 가리키는 종말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(마 24:21; 계 7:14).
- “피로 씻어 희게 한다”는 역설은 복음의 핵심 문법입니다. 죄의 씻음은 인간 공로가 아니라 **어린양의 피**에 근거합니다(요일 1:7; 계 1:5; 계 5:9; 히 9:14; 벧전 1:18-19).
- 문맥 연결: 6장의 순교자들(계 6:9-11)과 7장의 큰 무리는, 환난이 “구원의 조건”이 아니며, 환난이 구원의 문을 닫지도 않습니다. 오히려 **구원의 수확을 드러내는 자리**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(계 6:9-11; 계 7:14; 계 12:11).

## 계 7:15

- 그들은 왕좌 앞에 있으며,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깁니다.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.
- 핵심은 “심판을 피했기 때문에”가 아니라, “피로 씻었기 때문에” 그들이 왕좌 앞에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.
- “거하신다”는 표현은 장막(거처)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, 하나님이 단지 판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**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구원자이심**을 강조합니다.
- 이는 구약의 “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” 언약과, 신약의 “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” 및 계시록의 최종 성취와 연결됩니다(레 26:11-12; 겔 37:27; 요 1:14; 계 21:3; 계 7:15).

## 계 7:16

- “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,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.”
- 이것은 6장의 봉인들이 만든 현실과 정면 대조됩니다.
  - 3봉인의 기근,
  - 4봉인의 죽음,
  - 6봉인의 우주적 혼란...
 그 한복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“심판의 환경”을 최종적으로 뒤집는 **새 질서**를 약속하십니다.
- 이사야의 구원 약속과도 직접적으로 겹칩니다(사 49:10; 요 6:35; 계 7:16; 계 21:4).
- 하나님이 환난 이후 만이 아니라, 환난 한복판에서도 자기 백성을 “지키고 위로하는” 구원 문법이 드러납니다(시 23:1-4; 계 7:16).

## 계 7:17

- “왕좌 한가운데 있는 어린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,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.”
- 여기서 그리스도론은 절정에 이릅니다.
  - 어린양이 “왕좌 한가운데” 계신다는 것은 통치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뜻합니다(계 5:6; 계 7:17).
  - 어린양이 “먹이시는 목자”로 나타나는 것은 ‘그리스도=선한 목자’ 문법의 종말론적 성취입니다(요 10:11; 시 23:1-2; 사 40:11; 겔 34:23; 계 7:17).

- “생명수”는 요한복음의 약속과 계시록의 최종 성취가 일치합니다(요 4:14; 요 7:37-39; 계 21:6; 계 22:1, 17).
- “모든 눈물을 씻음”은 이사야의 위로 약속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흐름입니다(사 25:8; 계 21:4; 계 7:17).
- 문맥 연결: 6장은 “어린양의 진노”로 끝나고(계 6:16-17), 7장은 “어린양의 목양”으로 끝납니다(계 7:17). 같은 어린양이 거절한 자에게는 진노,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목양으로 드러나는 계시록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(요 3:36; 계 6:16-17; 계 7:10, 17).
  - 즉, 계시록의 심판은 ‘파괴가 목적’이 아니라, 구원받은 백성을 영원한 목양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룩한 회수 과정입니다.

### III. 문맥 배경

- 4장: 왕좌 예배(하늘의 주권 선언)(계 4:2-11)
- 5장: 하늘 재판정(책/봉인의 합법성 확정, 어린양의 합당함 선언)(계 5:1-14)
- 6장: 봉인 심판(정복→전쟁→기근→죽음→순교→우주적 흔들림)(계 6:1-17; 마 24:4-29)
- 7장: 삽입장(심판 진행 중 “보호/구원”의 표식과 수확)(계 7:1-17; 겔 9:4-6)
- 8장: 일곱째 봉인(침묵 후 나팔 심판으로 확대)(계 8:1-2)

특히 7장은 편집신학적(성령님의 배열 의도)으로, 6:17의 질문을 그냥 공중에 남기지 않고 “누가 셀 수 있는가”를 먼저 보여 준 뒤 다음 단계(나팔)로 넘어가게 하는 해석의 완충지대입니다.(계 6:17; 계 7:9; 말 3:2).

### IV. 원어 분석 (필요 범위)

- seal (σφραγίς, *sphragis*) : 봉인/소유 표시/권리의 잠금(계 7:2-3; 계 9:4)
- open (ἀνοίγω, *anoigō*) : 열다(닫힌 권리를 ‘실행’ 단계로 전환)(계 6:1; 계 8:1)
- crown (στέφανος, *stephanos*) : 승리의 관(받는 관/부여된 권위의 표지로 자주 사용)(계 2:10; 계 3:11; 계 6:2)
- diadem (διάδημα, *diadēma*) : 왕권의 관(왕권 표지)(계 12:3; 계 13:1; 계 19:12)
- conquer (νικάω, *nikaō*) : 이기다/정복하다(계시록에서 짐승-성도-어린양 대립 구조로 반복)(계 6:2; 계 13:7; 계 17:14)
- wrath (ὀργή, *orgē*) : 누적된 거룩한 진노(공의의 집행)(롬 2:5; 계 6:16-17; 계 11:18)
- tribulation (θλίψις, *thlipsis*) : 압박/환난(특히 “큰 환난”은 마지막 국면의 집중 압박을 가리키는 겔)(마 24:21; 계 7:14)

### V. 본문의 문맥적 해석

- 6장은 “심판의 시작”이지만, 그 심판은 곧바로 초자연 재앙부터가 아니라, **인간 문명이 의지하던 축(정치·평화·경제·생명)**을 순서대로 꺾으며 “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”는 거짓을 폭로합니다(마 24:6-8; 계 6:2-8).
  - 7장은 그 폭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 줍니다.
    - 심판이 커질수록, 하나님은 먼저 **구별(인침)**을 하시고,
    - 동시에 **구원의 수확(큰 무리)**을 일으키십니다(겔 9:4-6; 계 7:3, 9-10).
  - 즉,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은 “심판만”도 아니고 “구원만”도 아닙니다.  
심판으로 거짓을 무너뜨리시고, 그 무너짐 속에서 참된 구원을 건져 올리시는 방식입니다.
- 

## VI. 그리스도론적 해석

- 어린양은 6장에서 봉인을 여시는 집행자입니다. 심판의 중심은 “재난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리 행사입니다.
  - 동시에 어린양은 7장에서 구원의 근거(피)이며, 마지막에는 목자로서 먹이고 인도하십니다(계 7:17).
  - 그러므로 계시록 6-7장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.  
“어린양이 여시며(심판), 어린양이 씻기시며(구원), 어린양이 먹이신다(목양).”(계 6:1; 계 7:14, 17; 계 5:9).
- 

## VII. 신약 인용 비교

- 감람산 강화(마 24, 막 13, 눅 21)의 흐름—전쟁/기근/죽음/박해/우주적 표적—은 계 6장의 봉인 연쇄와 구조적으로 강하게 평행합니다.
  - 특히 “우주적 흔들림”(해·달·별의 변동)은 마 24:29의 어휘장과 맞물리며, 계 6:12-14가 “인간사”를 넘어 “창조 질서”를 흔드는 국면임을 뒷받침합니다.
  - 또한 성도들이 “진노”의 대상이 아니라는 약속(예: 살전 5장 문맥)과, 7장에 등장하는 “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”을 함께 두면,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
    - 진노의 집행과
    - 구원의 보존을
 서로 충돌 없이 동시에 수행하심이 분명해집니다.
- 

## VIII. 교리 오용 반박

### 1. 첫째 말(흰 말)을 곧바로 그리스도로 단정하는 오용

- 계 19의 흰 말과 계 6의 흰 말은 “색”만 같고, 표지들이 다릅니다.
  - 계 6:2는 “활/부여된 왕관/정복의 확장”
  - 계 19는 “많은 왕관/진리의 전쟁/입의 칼”

- 따라서 계 6:2를 “그리스도의 재림”으로 곧바로 읽으면, 2-4봉인의 연쇄(전쟁·기근·죽음)가 “그리스도의 직접 재림 직후”로 들어가면서 문맥이 심하게 꼬이기 쉽습니다.
2. 144,000을 “교회” 혹은 특정 집단만의 천국 티켓으로 축소하는 오용, 또는 “구원의 총량”으로 가두는 오용
- 본문은 “이스라엘 자손의 지파”라고 직접 말합니다(계 7:4).
  - 또한 7장에는 144,000 다음에 “셀 수 없는 큰 무리(열방)”가 즉시 등장합니다(계 7:9). 즉, 144,000을 “구원받는 사람의 총량”으로 가두는 해석은 7장 자체와 충돌합니다.
3. “환난에는 성도가 없다”는 단순화
- 6장의 순교자(계 6:9-11), 7장의 큰 무리(계 7:14)는 환난 국면에도 분명히 구원받는 성도들이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.
  - 마지막 때의 구원은 “환난이 없어서”가 아니라, “환난 속에서도 어린양의 피가 능력이기 때문에” 가능한 구원입니다.

## IX. 성경 간 연결

- 출애굽 재앙 전 “구별/표식” 문법 ↔ 계 7장의 인침(출 12:13; 겔 9:4-6; 계 7:3)
- 겔 9장의 이마 표식 ↔ 계 7장의 인침
- “얼마나 더” 탄원(시편/대언서) ↔ 계 6:10(시 79:5; 시 94:3; 스 1:12; 계 6:10)
- “주의 날” 우주 표적 ↔ 계 6:12-14(욥 2:30-31; 사 34:4; 마 24:29; 계 6:12-14)
- “표(이마/손)”의 소속 상징 ↔ 하나님의 인 vs 짐승의 표(출 13:9, 16; 신 6:8; 계 7:3; 계 13:16-17)

## X. 결론

계시록 6-7장은 “심판의 공포”만을 보여 주는 장이 아닙니다. 4-5장에서 왕좌의 주권과 어린양의 합당함이 확정된 뒤, 6장은 그 권리가 땅에서 집행될 때 인간 질서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 줍니다. 그러나 성령님은 6장을 여섯째 봉인에서 멈추시고 7장을 삽입하여,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별과 구원을 먼저 보여 주십니다.

- 6장: 어린양이 여시며, 땅은 무너지고, 죄는 본색을 드러냅니다.
- 7장: 하나님이 인치시며, 피로 씻긴 무리가 왕좌 앞에 서고, 어린양이 목자가 되십니다.

그러므로 “누가 능히 서리요?”에 대한 답은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.

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, 그리고 어린양의 피로 씻어 예복을 회개 한 자들이 능히 섭니다.

결국 서게 하는 능력은 인간의 버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과 어린양의 피입니다(겔 9:4-6; 계 7:3-4, 14; 요일 1:7).